

제주항공 (089590)

Company Issue Brief | 운송 | 2024. 11. 25

[NDR 후기] 신기재 확보가 열쇠

| Analyst 이재혁 | jaehyuklee@ls-sec.co.kr

3분기 경쟁 확대에도 튼튼했다

- 3Q24 여객 성수기 수혜로 호실적 시현.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, 일본노선의 꾸준한 수요 강세와 중국/동남아 노선의 개선세에 힘입어 높은 탑승률과 Yield 방어에 성공
- 2024년 근거리 여객 시장의 화두는 공급 증가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의 일본노선 공급 증가(1Q24~)와 이스타항공, 에어로케이의 영업 확대로 경쟁환경 다소 격화되었으나 강한 수요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함에 따라 운임은 우려 대비 소폭 하락에 그침
- 4Q24는 3Q24 - 1Q25 양 성수기 사이의 골짜기. 강한 수요를 감안할 때 L/F 견조하겠으나 운임은 소폭 하락될 것으로 예상. 항공유 가격 하락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 예상되지만 3Q 기말 대비 상승한 환율은 부담 요인

25년 신기재 확보가 열쇠

- Boeing 사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737 Max-8 기재를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것은 올해 아쉬운 대목. 동사는 25년 7대의 신규 기재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
- 25년에도 항공사간 근거리노선 위주의 공급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. 연료 및 정비 측면에서 기존의 800 ng 기재 대비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갖는 737 Max-8 기재의 빠른 확보는 운임 경쟁 속에서도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돌파구
- 한편 11/21 미 연방항공청(FAA)는 23년 사우스웨스트항공에서 발생한 2건의 조류 충돌사고(버드 스트라이크)와 관련, CFM LEAP-1B 엔진 안전 문제 검토를 위해 향후 몇 주 내에 검토위원회를 소집할 것임을 밝힘

중국 Out-bound 수요 반등 기대

- 11/22 중국 정부는 11/30 부터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
- 동사는 현재 인천발(6), 무안발(2), 제주발(2) 을 통틀어 총 10개의 중국 노선을 운항 중. 중국향 O/B 수요 성장시 경쟁 LCC 대비 더 빠른 실적 수혜를 예상
- 무비자정책 발표 이후 운항편수, 탑승률 반등 추세. Hard-block 공급/수요 점차 확대되며 중국노선 실적 성장 기대

Buy (유지)

목표주가 (유지)	15,000 원
현재주가	9,090 원
상승여력	65.0 %
시가총액	7,330 억원
KOSPI (11/22)	2,501.24 pt

Stock Data

90일일평균거래대금	220.4 억원
외국인 지분율	4.1 %
절대수익률 (YTD)	-22.5 %
상대수익률 (YTD)	-16.7 %
배당수익률(24E)	0.0 %

재무데이터

(십억원)	2022	2023	2024E	2025E
매출액	703	1,724	1,957	1,976
영업이익	-178	170	154	161
순이익	-180	134	86	111
ROE (%)	-76.2	44.9	25.5	26.5
PER (x)	n/a	7.0	8.5	6.6
PBR (x)	4.0	3.0	2.0	1.5

주: K-IFRS 연결 기준

자료: 제주항공, LS증권 리서치센터

Stock Price



제주항공 목표주가 추이	투자 의견 변동내역											
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리율(%)		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과리율(%)		
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	2024.01.09	신규	이재혁									
	2024.01.09	Buy	15,000									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이재혁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
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합계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3.9% 6.1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		100.0%	투자 의견 비율은 2023. 10. 1 ~ 2024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